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루마니아

Romania

2022년 4월 14일 | 선임조사역(팀장군) 김찬수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238천 km ² 	인구 19.3백만명 (2021 ^e) 	정치체제 의원집정부제 	대외정책 친미, 친서방 정책 
GDP 2,873억 달러 (2021 ^e) 	1인당GDP 14,864 달러 (2021 ^e) 	통화단위 Leu 	환율(U\$기준) 4.16 (2021 ^e) 

- 루마니아 지역은 기원전 1세기 다치아(Dacian) 민족이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기원후 105년 로마에 정복당한 후 150년 간 통치되는 등 루마니아인들은 다치안과 로마인의 후예라는 인식이 있음.
- 인종은 루마니아계(83%), 헝가리계(6%) 등이고, 공용어는 루마니아어이며, 영어·독일어·불어·헝가리어 등이 상용어임. 종교는 9세기 불가리아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 전파된 동방 정교회가 81.9%를 차지하며, 프로테스탄트(6.4%), 로마 카톨릭(4.3%) 등임.
- 1차 세계대전 승전국으로 1918년 12월 1일 트란실바니아 등을 합병하여 국토를 크게 넓힌 바 있음. 2차 세계대전 후 인민공화국이 선포되었으나, 1989년 12월 차우세스쿠가 장기 집권하던 공산정권이 무너지면서 체제가 전환되었음. 2004년에는 NATO, 2007년에는 EU 가입국이 됨.
- 2021년 10월 내각 불신임안 통과 이후 2021년 11월 치우카 국방부 장관이 새 총리에 지명되고, 국민자유당(PNL)은 사회민주당(PSD) 및 민주헝가리인연합(UDMR)과 연정을 이루는 데 합의함.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0. 3. 30 수교 (북한과는 1948. 11. 3)

주요협정 문화협정('92), 이중과세방지협정('94), 항공운송협정('94),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협정('01), 원자력협력협정('04), 경제과학기술협정(개정, '06), 투자증진및보호협정(개정, '08), 사회보장협정('10),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15)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주요품목
수 출	562	505	588	철강판, 자동차, 합성수지
수 입	455	531	627	의류, 사료, 자동차부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21년 12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43건, 997백만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성장률	7.3	4.5	4.1	-3.9	7.0
소비자물가상승률	1.3	4.6	3.8	2.6	4.3
재정수지/GDP	-2.8	-2.8	-4.6	-9.6	-6.7

자료: IMF, EIU

2020년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 민간소비와 투자 증가 등으로 7.0% 성장

-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제가 -3.9%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에는 민간소비와 투자 증가 등 내수 호조로 7.0%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한 것으로 추정됨.
- 2020년 분기별 경제성장률(전년동기 대비): 2.3%(1Q) → -10.1%(2Q) → -5.6%(3Q) → -1.5%(4Q)
- 2021년 민간소비 및 투자 증가 등 내수 회복에 따라 2분기와 3분기에 경제성장률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른 정부의 제한조치 도입으로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었음.
- 2021년 분기별 경제성장률(전년동기 대비): -0.2%(1Q) → 13.9%(2Q) → 7.4%(3Q^e) → 4.7%(4Q^e)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2021년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크게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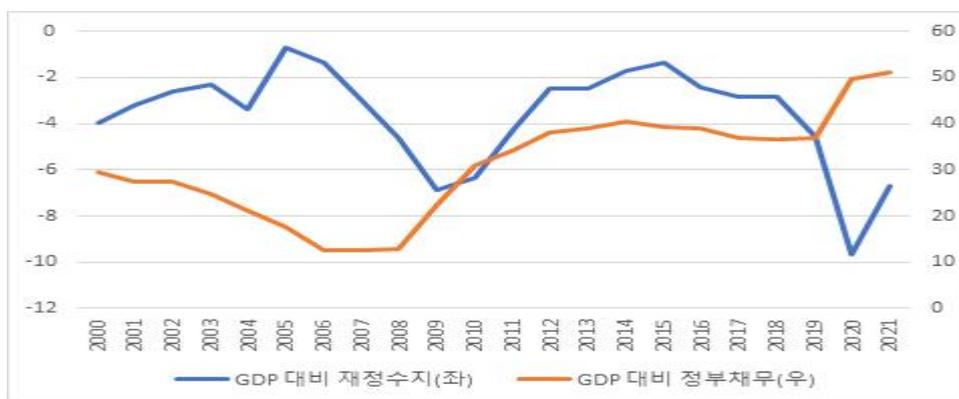
- 2021년에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난방 및 연료 가격 상승, 임금 인상 등으로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가스 및 전기 요금 인상 등으로 2021년 1분기 3.1%에서 4분기 8.0%로 상승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음.
- 2021년 분기별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 대비): 3.1%(1Q) → 3.6%(2Q) → 5.5%(3Q^e) → 8.0%(4Q^e)
- 루마니아 에너지가격은 EU 내에서 높은 수준으로, 가스 가격 급등 후 2021년 10월 국영 가스기업 파산으로 인해 서부 티미쇼아라 시에서는 5만 가가와 대다수 병원에 난방과 급탕이 수일 간 중단됨.
- 2021년 10월에 가계 및 소기업에 대한 가스 및 전기 요금 상한을 적용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정부의 에너지가격 상한 등 시행으로 2021년 11월에는 요금 상승이 완화됨.
-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2021년 10월에 1.25%에서 1.5%로 인상한 데 이어 11월에 1.5%에서 1.75%로 인상하였으며, 2022년 1월 최저임금 10.9% 인상 등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 1월에 1.75%에서 2.0%로 인상하고 2월에도 2.0%에서 2.5%로 인상함.

국내경제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GDP 대비 -6.7%의 재정수지 적자 지속

-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제한조치로 생산활동이 위축된 결과 세수 감소로 재정수입 증가가 둔화된 반면,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각종 조치 등으로 재정지출 증가가 확대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전년(-4.6%)보다 대폭 상승한 -9.6%를 기록함.
- 2021년에는 경제성장률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 등으로 재정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등 재정지출 증가가 전년 대비 둔화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6.7% 수준으로 전년 대비 완화된 것으로 추정됨. 2022년에는 보건 및 교육 등 특정 부문을 제외한 공무원 임금 동결 등으로 재정지출 증가를 통제할 계획임.
- 루마니아의 과도한 재정수지 적자 등으로 2021년 6월 EU는 루마니아의 초과재정수지적자 시정절차 (Excessive Deficit Procedure¹⁾)에 대한 권고사항을 채택하고, 2024년까지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낮추기 위한 재정안정화 전략을 요구함.
- 한편, 루마니아의 정부채무는 2020년 기준 GDP 대비 49.8%로 역내 스웨덴(37.3%), 체코(37.8%), 노르웨이(41.4%), 덴마크(42.1%), 스위스(42.4%), 리투아니아(47.1%) 등과 함께 다소 낮은 수준이나, 재정수지 적자 지속 등에 따라 상승 추세에 있으며 2026년에 GDP 대비 61.4%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²⁾됨.

[그림 1] 루마니아의 GDP 대비 재정수지 및 정부채무 추이(%)



자료: IMF

1) EDP 대상 국가는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 이상에 해당되는 국가로, 예산편성 제한, EU 펀드 배정 불이익 등을 받음.

2) IMF Romania Article IV/Country Report(August 20, 2021)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 상 수 지	-6,584	-11,136	-12,184	-12,624	-18,727
경상수지/GDP	-3.1	-4.6	-4.9	-5.1	-6.5
상 품 수 지	-14,551	-18,019	-19,960	-21,667	-28,575
상 품 수 출	64,585	73,050	70,622	65,870	81,838
상 품 수 입	79,136	91,069	90,582	87,537	110,413
외 환 보 유 액	38,700	36,482	35,565	44,463	41,990
총 외 채	117,221	114,318	123,331	154,524	165,946
총외채잔액/GDP	55.4	47.3	49.4	62.1	57.8
D.S.R.	20.2	20.8	18.3	20.4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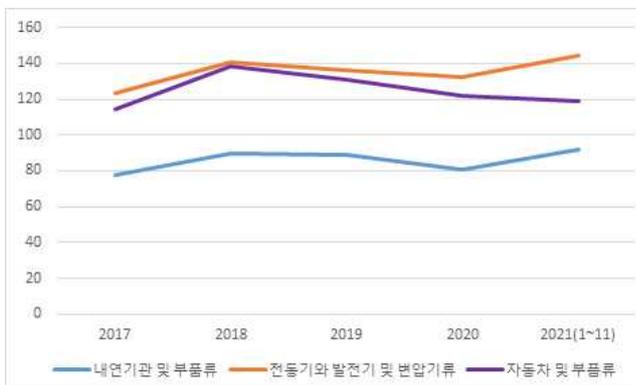
자료: IMF, EIU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지속

- 2021년에는 내수 회복 및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 증가폭을 능가하는 수입 증가에 따라 상품수지 적자 규모가 2020년 -217억 달러에서 2021년 -286억 달러로 확대되었음. 한편, 상품수지 적자 확대 및 소득수지 적자 규모도 확대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 -126억 달러에서 2021년 -187억 달러(GDP 대비 -6.5%)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 2021년 상품수지 적자는 2020년 -217억 달러에서 2021년 -286억 달러로 확대되었고, 서비스수지 흑자 규모는 2020년 108억 달러에서 2021년 122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소득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 -40억 달러에서 2021년 -49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그림 2] 루마니아의 주요 수출품 수출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UN

[그림 3] 루마니아의 주요 수입품 수입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UN

대외거래

경상수지 적자 확대와 수입 증가 등으로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의 3.5개월분 수준으로 감소

- 2021년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루마니아 외환보유액은 2020년 445억 달러에서 2021년 42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월평균수입액 대비 규모는 2020년 4.7개월분에서 2021년 3.5개월분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한편, 루마니아 정부의 예산에 의하면 재정수입 중 EU로부터의 지원 등 EU 펀드 수입이 2020년 336억 레우(재정수입의 10.4%), 2021년 463억 레우(11.9%), 2022년 590억 레우(13.4%)로 연도별 경상수지 적자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수준임.

외채상환능력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 하락 등 외채상환능력 전년 대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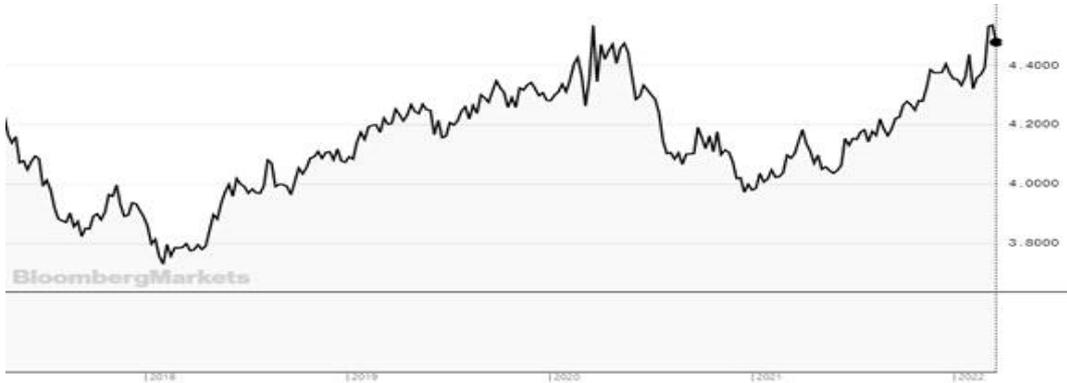
- 총외채가 2020년 1,545억 달러에서 2021년 1,659억 달러로 7.4% 증가하였으나 총수출도 2020년 998억 달러에서 1,216억 달러로 21.8% 증가함에 따라,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020년 154.8%에서 2021년 136.5%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D.S.R.도 2020년 20.4%에서 2021년 9.8%로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GDP가 2020년 2,487억 달러에서 2021년 2,873억 달러로 15.5%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도 2020년 62.1%에서 2021년 57.8%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외채상환능력은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보임. 다만,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율은 2020년 91.4%에서 2021년 96.7%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구조적취약성

경상수지 적자 지속으로 레우화 가치 하락 우려

- 루마니아 레우화 가치는 2018년 이후 미 달러 대비 하락세였으며, 2020년에 다소 상승하였으나 2021년 이후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경상수지 적자 지속 등으로 루마니아 레우화 가치 하락이 향후에도 지속될 경우 환율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그림 4] 미 달러화 대비 루마니아 레우화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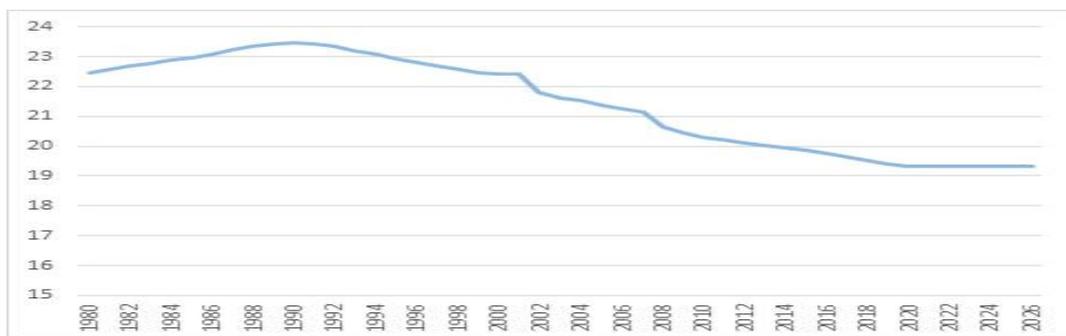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노동력 유출에 따른 기술 부족 심화 우려

- 루마니아 노동자가 고소득 및 더 나은 고용 기회를 찾아 EU 여타 지역으로 이주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루마니아의 기술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EU 가입 후 고급인력과 숙련 노동력이 부유한 서유럽 EU 회원국들로 유출되어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루마니아 인구는 국외 이주 등으로 1990년 2,346만 명에서 2021년 1,933만 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50년까지 생산가능인구의 1/3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³⁾됨.

[그림 5] 루마니아의 인구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 명



자료: IMF

3) Fitch Report(2 November 2021)

성장잠재력

유럽 국가들 중에서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시현

- 루마니아는 2015년을 제외하면 2011년 이후 EU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고 있는 등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또한, 가계부채 규모가 2020년 말 GDP 대비 16.2%⁴⁾로 제한적이고 소비시장이 커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인 경제성장 잠재력이 있음.

2020년에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크게 감소

- 루마니아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교육받은 노동력 등으로 인해 매력적인 FDI 대상국으로, 루마니아의 FDI 유입은 2008년 136.7억 달러에 달했으나, 2011년 23.7억 달러로 하락하였으며 이후에도 2008년 규모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 루마니아의 해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2017년 54.2억 달러에서 2018년 62.2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 57.9억 달러로 감소한 데 이어 2020년에는 23.2억 달러로 대폭 감소함.
- 루마니아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통 인프라 여건, 정치 불안정, 예측 불가능한 정부 정책, 행정처리 지체 등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장애가 되고 있음.

정책성과

정부 정책효율성 지수는 하락 추세

- 루마니아 정부의 정책효율성 지수는 2014년 0.16에서 2016년에는 -0.04로 하락한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여 2020년에는 -0.22를 기록하는 등 공공 부문 전반의 비효율이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루마니아의 사법체계는 EU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협력·검증 메커니즘을 통해 모니터링되고 있음. 2017~19년에 당시 루마니아 정부가 도입한 퇴행적 사법개혁을 철회할 경우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교통 인프라 및 원전 등 대규모 투자전략 발표

- 루마니아 교통부는 2021년 12월 "2020-2030 교통인프라 개발 계획(안)"을 통해 도로 인프라 341.9억 유로, 철도 인프라 206.3억 유로, 지하철 인프라 107억 유로, 해상 인프라 44.6억 유로, 공항 인프라 27.9억 유로 등 대규모 투자전략을 발표하였음. 자금의 대부분은 EU 경제회복기금 등 EU 기금임.
- 루마니아는 천연가스와 원전 에너지를 국가 에너지믹스로 활용할 계획으로, 치우카 총리는 2022년 2월 체르나보더 원전을 방문하고 국영원자력전력사(SNN)의 원전 투자 프로젝트(3호기·4호기 발전소 신규 건설 등)를 활용하여 에너지 안보 증대 및 친환경 체제 전환에 기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함.

정치안정

2021년 11월 연정을 구성하였으나 정치적 불안요소 잠재

- 여당인 중도우파 국민자유당(PNL)은 2020년 12월 총선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관리부실 등으로 인해 25%의 득표율에 그쳐 사회민주당(PSD)의 29%에 뒤졌으나, 루마니아구국당(USR+) 등과 함께 국민자유당 소속 시투(Citu) 총리 주도의 연립정부를 출범시킴.
- 그러나, 2021년 9월에 시투 총리가 루마니아구국당 소속의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는 등 연정 내 갈등이 불거지자, 루마니아구국당이 총리의 독선적 국정 운영을 비판하며 야당인 사회민주당이 발의한 불신임안에 찬성함으로써 2021년 10월 내각 불신임안이 통과되어 정국 혼란이 심화됨.
- 2021년 11월 국민자유당은 사회민주당 및 민주헝가리인연합(UDMR)과 연정을 이루는 데 합의하고, 국민자유당 소속의 니콜라에 치우카(Nicolae Ciuca) 국방부 장관이 새 총리로 지명되었음. 국민자유당은 경제·법무·에너지·내무부 장관 등을, 사회민주당은 농업·국방·교통부 장관 등을 맡고 있음.
- 중도우파인 국민자유당과 과거 국민자유당의 정적이었던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등으로 구성된 연정은 사법개혁 등에 대한 정치적 견해차로 분열될 가능성도 있는 등 정치적 불안요소가 잠재되어 있음.

사회안정

실업률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

- 루마니아의 실업률은 2016년에 7.2%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9년 4.9%로 하락한 이후에 2020년 6.1%로 상승하였다가 2021년에는 5.4%로 다시 하락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정치적·시민적 자유 및 민주주의 측면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

- 루마니아는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 인권 증진 등의 활동을 하는 국제 민간단체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평가하는 세계자유지수(Freedom in the World 2022)에서 '자유' 등급으로 분류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Freedom in the World 2022⁵⁾에서 사회적 자유도인 Global Freedom Scores(83점: "자유"[Free])는 조사대상 중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수준(0~100)에서도 중위권인 57/100을 기록함.

5) Global Freedom Scores : Political Rights 35/40 + Civil Liberties 48/60 = 83/100

사회안정

EU 내 최하 수준의 부패인식지수 등 부패 만연

- 2021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평가한 루마니아의 부패인식지수(CPI) 순위는 2017년 59위에서 2019년 70위로 하락하였으며, 2021년에는 66위(평가대상 180개국)로 소폭 상승함. EU내에서는 2021년 기준 불가리아(78위)와 헝가리(73위)를 제외하면 최하 수준으로, 부패가 여전히 사회 전반에 만연하여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저해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루마니아 반부패청장으로 재임한 로라 코드루타 코베시는 임기 중 전·현직 장관 14명을 기소했고, 상·하원을 합쳐 국회의원 53명을 기소한 바 있음.

Moody's는 루마니아의 ESG 신용영향점수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

- 국제신용평가기관인 Moody's는 루마니아의 낮은 환경위험 익스포저, 중간 수준의 사회위험, 지배구조 악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루마니아의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 Moody's의 ESG 신용영향점수는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됨. 2021년 11월 Moody's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ESG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대한민국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7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7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19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1개국이 2-3등급, 66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있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루마니아의 환경위험 익스포저는 대체로 낮은 수준으로, 환경 영향은 2등급(Neutral-to-Low)으로 평가됨.
- **(사회)** 루마니아의 사회 위험에는 부정적인 인구통계, 여타 EU 국가 대비 낮은 서비스 접근성, 중간 수준의 교육실적 등이 포함되며, 사회 영향은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세계지배구조지표⁶⁾ 기준 루마니아의 '법의 지배' 및 '부패 통제' 측면에서 중간 수준의 실적과 일정하지 않은 거시경제 정책효율성이 결합되어 있으며, 정부의 부채 증가 등을 고려하면 회복력은 악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지배구조 영향은 2등급(Neutral-to-Low)으로 평가됨.

6)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국제관계

EU 가입 이후 EU 및 미국과의 협력 강화

- 루마니아는 2007년 1월 EU에 가입했으나, 부정부패, 사법 및 인권 분야 개선 필요사항 등으로 EU로부터 협력·검증 메커니즘⁷⁾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평가를 받고 있음. 2021년 3월에 루마니아 의회를 통과한 사법개혁에 대하여, EU는 2021년 5월 EU 추천사항이 진전을 이루었다고 우호적으로 평가함. 동 개혁으로 인해 협력·검증 메커니즘의 모니터링은 2022년에 해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EU 쉥겐조약 가입이 가능하게 됨.
- 루마니아 법무장관은 2022년 1월 루마니아는 협력·검증 메커니즘의 종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함.
- 2021년 9월 EU 집행위원장이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하여 요하니스 대통령 및 시투 총리와 각각 면담 후 루마니아의 '경제회복 및 복원력 강화계획'⁸⁾을 승인함. 루마니아는 동 계획을 통해 2021~26년 EU로부터 총 291.8억 유로(142.5억 유로는 보조금, 149.3억 유로는 대출)를 지원받을 예정임.
- 루마니아는 EU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미국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 점령 사태 당시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자국의 안전 확보를 위해 미국 및 NATO와 관계를 강화하였고, 2016년 3월에 미국은 루마니아 남부 데베셀루 공군기지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공식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음.
- 루마니아는 미국의 정책에 맞추어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 채택을 선호할 것으로 보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군대를 집결한 이후, 2022년 1월에 프랑스와 미국은 안보 우려로 루마니아에 군대 파견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루마니아 대통령도 루마니아가 NATO군 주둔 확대를 진행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발표함. 이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하자, NATO 회원국 정상들은 3월 24일 정상회의를 열고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4개국에 다국적 전투단을 배치하기로 합의함.

7) Cooperation and Verification Mechanism

8) National Recovery and Resilience Plan (PNRR)

외채상환태도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비율은 2021년 9월 말 기준 0.19%로 비교적 낮은 수준

- 2021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루마니아 앞 여신 원리금 잔액은 10억 819만 달러(단기 5억 1,860만 달러, 중장기 4억 8,959만 달러)이며, 이 중 연체액은 190만 달러(단기 60만 달러 및 중장기 130만 달러)로 전체 잔액의 0.19%로 비교적 낮은 수준임. 다만, 2020년 9월 말 기준 수치(중장기 170만 달러, 전체 잔액의 0.16%)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함.
- 연체비율: 0.16%(’20. 9월) → 0.14%(’20. 12월) → 2.00%(’21. 3월) → 0.15%(’21. 6월) → 0.19%(’21. 9월)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3등급(2022.01)	3등급(2021.01)
S & P	BBB-(2021.04)	BBB-(2019.12)
Moody's	Baa3(2021.10)	Baa3(2020.04)
Fitch	BBB-(2021.10)	BBB-(2021.04)

국제신용평가 3사의 투자적격 등급 보유

- S&P, Moody's 및 Fitch 등 국제신용평가 3사는 중기 경제성장 잠재력,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물가상승률 확대 등을 고려하여 루마니아에 대해 종전 평가등급을 유지하여 투자적격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OECD도 2022년 1월 루마니아에 대해 기존의 3등급을 유지함.

- 루마니아 경제는 2020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3.9%의 역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에는 민간소비와 투자 증가 등 내수 호조로 7.0%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2020년 -9.6%에서 2021년 -6.7%로 축소되었으나 적자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상수지 적자도 GDP 대비 2020년 -5.1%에서 2021년 -6.4%로 확대되는 등 적자 추세가 지속됨.
- 2021년 10월 내각 불신임안 통과 이후 2021년 11월 니콜라에 치우카 국방부장관이 새 총리에 지명되고, 국민자유당(PNL)은 사회민주당(PSD) 및 민주헝가리인연합(UDMR)과 연정을 이루는 데 합의하였으나 정치적 견해차 등 불안요소가 잠재해 있음.
- 재정·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율이 2021년에 다시 상승함. 또한, 재정수지 적자 축소를 위한 정책 시행 관련 불확실성,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등도 불안요소임.
- 이상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루마니아의 신용등급을 기존 등급에서 한 단계 하향 조정된 C2로 부여코자 함.